

전주한옥마을 '문화재 야행' 평일에도 개방

대표적 야간 문화관광콘텐츠 내년부터 상설 운영키로 상가·숙박시설 등 유기적 연계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재 야행'이 평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설화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열린 '전주 문화재 야행'이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관광콘텐츠로 평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일에도 상설 운영키로 했다.

전주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 프로그램이다.

각종 문화시설과 상가, 숙박 시설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문화예술인 150여명이 참여해 한옥마을을 거치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전 야간 기행 프로그램인 '왕과의 산책'의 경우 모두 매진(16회)하면서 선풍적인 호응을 얻었다. 왕의 음

성으로 문화해설을 들으며 달빛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

또 '이야기술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풀어낸 조선왕조실록의 숨겨진 이야기와 조선지도, 태조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배우들이 실감나게 전달해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왕과의 산책과 이야기술사, 수문장 교대식과 수문장 배치, 수복청 공연, 풍납문 미디어아트, 향교 별빛 콘서트 등 문화재 역사 콘텐츠를 평일 야간에 고르게 배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전주가 간직한 문화재의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야행이 상설화되면 주·야간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 '문화재 야행' 대표 기행 프로그램인 '경기전 왕과의 산책' 모습.

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 문화재 야행을 통해 한옥마을 역사 문화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도식품수출협회 기업들이 미국 LA 현지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고 유망 수출업체와 1대 1 매칭 상담을 펼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700만달러 美 수출계약

완도군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미국 LA 현지에서 전북,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7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완도식품수출협회 기업들이 참가한 해외시장개척단은 최근 LA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고 유망 수출업체와 1대 1 매칭 상담을 펼쳤다.

그 결과 다시마 전북영어조합법인이 VECTOR NATE USA, PACIFIC GIANT와 2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완도바다식품이 KHEE TRADING INC와 100만 달러, 정산바다가 PACIFIC GIANT와 100만 달러, 흥일식품이 NORTHGATE

TRADING, KHEE TRADING INC와 2건 200만 달러, 하나물산이 Greenland Foods Company와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 또 완도산 수산물 유통 판매를 위해 완도군과 업체별 3자 업무협약을 2건 맺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멕시코 업체에서 향후 멕시코 시장 진출 전망도 밝게 했다.

LA 한인축제에는 완도군 향아식품이 참가해 해조류 가공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바이어와 현지 언론인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소개하고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남원시 '일자리 발굴' 머리 맞댄다

최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 참석 워크숍 개최

업무 공유·역량강화·협업사업 추진 공감대 형성

남원시가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남원시는 최근 각 기관별 일자리 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상호 협업사업 발굴을 위해 지리산 구절초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남원시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남원시 일자리지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각각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일자리사업 협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협업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에 조별 자유토론과 발표 등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2회 채용설명회와 내일있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남원시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별 장벽을 허물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남원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는 최근 지리산 구절초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남원시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익산 나들목~ 금마 구간 4.2km 지방도 임시 개통

전북도가 건설하는 익산 나들목~금마 구간 지방도 4.2km가 10일부터 임시 개통했다.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 이 도로는 익산 나들목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주도로다.

이 도로는 총 사업비 693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5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 예

정이며 임시 개통 후 앞으로 부대공사와 배수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익산 시내 주요 도로 94km를 재포장했다. 도는 체전 개최식과 폐회식에 맞춰 KTX 익산역 환승장과 익산 시내 주요 지점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행락철 내장산 주변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정읍시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장산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징수·택시 호객·불법 노점상·각설이 고성방가·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을 근절대상

불법행위 5대 분야로 간주하고 내장산 집달시설지구와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내장산은 단풍명소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행락철이면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함평군, '농업인 상담소' 부활...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

함평군이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년 만에 '농업인 상담소'를 부활시켰다.

10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폐지했던 농업인 상담소를 지역 내 농가계 임대사업장과 연계해 다시 운영한다.

농업인 상담소는 기존보다 근무인력을 확대 배치해 영농정보 전달, 영농현장에 로사향 해결, 일대일 맞춤형 현장 영농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담소장에는 농업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30년 경력의

농촌지도사 출신을 배치했다.

학교면 중부상담소(최동섭), 손불면 서부상담소(박석준), 해보면 동부상담소(심학섭) 등 총 3개소에는 딸기, 과수, 벼, 밤 호박 등 전문특기자를 가진 상담원을 배치해 실효성을 높였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상담소 부활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신기술 보급 사업 등 농업인들에게 시·기별 영농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황윤하 기자 hwang@

'역사는 미래다'... "고창모양성제 보러오세요"

고창군, 세종총사 등서 홍보

고창군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가 고창의 대표축제인 '제45회 고창모양성제'를 알리는 사전 홍보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모양성보존회와 경제살리기 회원, 고창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과 정부세종청사, 김제지평선 축제장에서 홍보행사를 가졌다.

고창 모양성제는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돼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10월 17-21일 5일간 고창읍성

(모양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홍보활동에서는 고창모양성제안내리플릿 함께 고창군 농특산품인 땅콩과 복분자 제품을 함께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통의상인 노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북도청 및 정부세종청사 직원들과 방문객, 김제지평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번 전북도청과 정부세종청사 홍보에서는 고창군 출신 공무원들이 고창모양성제 홍보에 함께 나서 고향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